



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1. 6. 30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
과 장 : 김 종 철
사무관 : 김 호 군
전 화 : 500-1863
쪽 수 : 8P
별첨자료 : 10P

이 자료는 7월 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G20차원의 세계식량안보 논의 본격화

김재수 농식품부 제1차관, G20농업장관회의, GRA장관회의 등 참석

〈 주 요 내 용 〉

◇ G20 농업장관회의에서는 “농업과 식량 가격 변동성에 관한 G20 행동 계획”을 채택

※ “농업과 식량 가격 변동성에 관한 G20 행동 계획”주요 내용

- ① 국제 밀 연구 이니셔티브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·연구 강화
- ② 농산물시장 정보시스템(AMIS) 창설로 시장정보의 투명성 향상
- ③ WFP의 인도적 목적 식량구매에 대한 수출규제 금지 등 국제 공조 강화
- ④ 취약계층에 대한 가격 변동성 영향 완화
- ⑤ 재무장관 채널과 협력하여 농산물 파생 금융상품 시장 규제강화

◇ 지속적 식량생산 및 농업온실가스 감축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동참하기 위하여 농업온실가스 국제연구연맹(GRA) 가입

◇ 차기 FAO사무총장 선출 및 아태지역 총회 의장국으로서 제30차 아태지역 총회 결과 발표

□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6월22일부터 6월27일까지 G20농업장관회의(6.22~23, 프랑스 파리), GRA(농업온실가스 국제연구연맹)장관회의(6.24, 이탈리아 로마), FAO(세계식량농업기구)총회(6.25~7.2, 이탈리아 로마)에 참석하여 세계식량안보와 농업온실가스 감축 관련 연구 등의 국제적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였음

- G20 농업장관 회의 -

□ G20농업장관회의는 금년 G20정상회의 개최국인 프랑스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1차산품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함에 따라 개최된 회의로서, 지난 1월부터 4차례의 고위급 회의를 거쳐 각료선언문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.

□ 식량수입국과 개발도상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침체에 이은 식량가격 급등,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식량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○ '09년의 세계영양결핍인구는 역사상 최고치인 10억2,300만명을 기록하였으며,

-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수급 불안정은 사회불안 요소로 비화되고, 이는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
○ 금번 G20농업장관회의에서 채택된 『농업과 식량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각료 선언문과 행동 계획』은 11.3~4일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농업생산 및 생산성 향상

-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이 **수급불안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결방안**이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**국제 밀 연구 이니셔티브**를 통해 밀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쌀관련 연구를 활성화

② 시장정보와 투명성

- 농산물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**FAO를 중심으로 농산물 시장 정보시스템(AMIS :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)**을 창설하며,
- 조기경보시스템(EWS), 신속대응포럼(RRF)을 AMIS와 연계하여 운영

③ 국제 정책공조 강화

- WFP의 인도적 목적의 식량구매에 대해서는 수출규제 및 과도한 수출세 부과 금지 합의
-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**FAO역할 강화** 및 자유로운 농산물 교역 증진을 위한 **DDA협상 타결 필요성 강조**
- 바이오 연료와 식량생산 및 공급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와 식량과 경합하지 않는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연구 강화

④ 취약계층에 대한 가격 변동성 영향 완화

- 개도국이 농업을 발전시키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, 식량안보 위험관리 수단을 개발하며,
- WFP 등 국제 공여기관을 통한 인도적 긴급 식량비축 시스템 구축방안 타당성 연구

⑤ 농산물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

- 농산물 파생상품 시장의 관리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강화 방안을 재무장관 채널에서 논의

□ 김재수 차관은 식량안보와 식량가격 불안정해소를 위해서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개발협력 다년간 행동계획의 지속적인 이행과 G20농업장관회의의 지속적 역할을 강조했다.

○ 특히 농산물 생산과 생산성 증가와 국제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량 증가는 농업연구 및 농업투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

○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위기관리 수단의 강화 및 개도국의 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해결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G20의 역할과 지속성을 강조했다.

- GRA 장관회의 -

□ 우리나라가 '농업 온실가스 국제연구연맹(이하 GRA)'에 가입하였다.

* GRA : Global Research Alliance on Agricultural Greenhoues Gases

○ 농림수산식품부 김재수 제1차관은 이태리 로마에서 6월 24일 금요일(현지시간)에 개최된 **GRA 장관회의**에 참석하여, **GRA 현장에 서명**함으로써 우리나라는 **35번째 회원국**이 되었다.

○ 김재수 제1차관은 국가발언(national statement)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례를 소개하고,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**녹색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함**을 강조하였다.

□ **GRA**는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안정적 식량 생산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 연구협력체로,

○ 미국, 뉴질랜드, 일본, 영국, 프랑스, 중국 등 **34개국**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,

○ 경종, 논농업, 축산 등 **3개의 연구그룹**에서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**국제 협력 연구** 수행할 예정이다.

* 연구그룹별 의장국가: (경종)미국, (논농업)일본, (축산)빈추 뉴질랜드, 비빈추 네덜란드

□ 우리나라가 이번 GRA 회원국으로 가입·활동함으로써, 농업분야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끌어가는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우리나라의 농업 온실가스 감축 기술은 선진국의 약 **70%** 수준(첨부5 참고)이며, 국제 연구협력을 통해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또한, '**녹색성장 선도국가**'로서 경쟁력 있는 국내의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개도국 등에 전파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제37차 FAO 총회 -

□ 6월25일부터 7월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FAO본부에서 **제37차 FAO총회**가 개최되고 있다.

○ 이번 FAO총회에서는 차기 **FAO 사무총장** 선출, 세계식량 농업상황 검토, 2012-13예산 심의·의결, 회원국 분담금 비율 확정, 이사국 선출 등이 이루어진다

□ 지난 26일 실시된 차기 **FAO사무총장** 선거에서는 오스트리아, 브라질, 인도네시아, 이란, 이라크, 스페인 등에서 6명이 출마하여 경합을 벌였다.

○ 1차 투표후 브라질 및 스페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,

- 2차 투표에서 전체 180표중 92표를 획득한 브라질의 그라지아노 실바(Jose Graziano da Silva) 후보가 88표를 획득한 스페인의 미구엘 모라티노(Miguel Angel Moratinos Cuyaube) 후보를 4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.

<투표과정 및 후보자별 득표수>

(단위 : 득표수)

후보자	1차투표	2차투표
Jose Graziano da Silva(브라질)	77	92
Miguel Angel Moratinos Cuyaube(스페인)	72	88
Indroyono Soesilo(인도네시아)	12	(후보사퇴)
Franz Fischler(오스트리아)	10	(후보사퇴)
Abdul Latif Rashid(이라크)	6	(후보사퇴)
Mohammad Saeid Noori Naeini (이란)	2	(후보사퇴)
계	179	180

- FAO사무총장은 임기가 4년으로 그라지아노 실바의 사무총장 임기는 2012.1.1~2015.7.31까지이며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
□ 이번 주에는 세계식량농업상황 및 정책 검토, 2012-13예산 심의 의결, 회원국 분담금 비율 확정, 이사국 선출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.

- 27일(월)에는 5개 지역(아·태, 근동, 아프리카, 유럽, 남미)별 FAO 지역 총회 결과 발표가 있었으며, 우리나라는 2010년9월 27일부터 10월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제30차 FAO아시아·태평양지역 총회 의장국 자격으로 지역총회 결과를 발표하였다.

- 우리나라는 FAO의 국가·지역사무소 등 분권화된 사무소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, 전 세계에서 기아인구가 가장 많은 아시아에 대한 배려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

- 필리핀, 호주,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발표내용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.

- 금번 총회에서는 농업·농촌발전에 있어 여성역할의 중요성을 주제로 각 국별 수석대표의 연설이 진행되고 있다

- 여성의 농업활동 참여 확대시 식량증산 효과가 크며, 식량 안보차원에서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.

- 우리나라는 현재 추진 중인 여성농업인 5개년 계획 등 여성 농업인 관련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면서,

- 기아에서 벗어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기아 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.

- 한편, 우리나라는 이사국으로 재선출될 것으로 전망되며,

- 이번에 이사국으로 재선출되면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9회 연속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이다.

□ 우리나라는 새로운 FAO 사무총장 선출을 계기로 한국의 FAO 재정 분담율에 비례하여 세계식량농업과 관련된 이슈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FAO에 전문가 및 고위급 진출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
* 한국의 FAO 재정분담금 비율은 세계11위 (11.9백만달러)

참고 1 G20 농업장관회의 개요

1. 회의개요

- “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”를 위한 각료 선언문 및 행동계획을 만들고, G20정상회의(11.3~4, 칸느)에 보고하기 위한 회의

- 참석대상 : 24개국(G20회원국, 초청국 4), 10개 국제기구

- ★ G20국 : 아시아·태평양(한국, 일본, 중국, 인도네시아, 인도, 호주), 아메리카(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브라질, 아르헨티나), 유럽(프랑스, 영국, 독일, 이탈리아, 터키, 러시아, EC), 중동(사우디아라비아), 아프리카(남아공)
- ★ 초청국 : 헝가리, 싱가포르, 스페인, 아랍에미리트(UAE)
- ★ 국제기구 : FAO, IFAD, IMF, OECD, UNCTAD, WFP, World Bank, WTO, IFPRI(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), UN HLT(High-Level Task Force)

○ 주요 일정

- 6.22(수) : 대표단 고위급 회의 및 농업장관회의
- 6.23(목) : 농업장관회의, 각료선언문 및 행동계획 발표

2. 논의배경

- 2008, 2010년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수입국과 개도국의 식량수급 어려움 가중

- 일부지역에서는 폭동 발생 등 사회 불안요인으로 비화되고,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

- ★ 세계영양결핍인구 : (2009) 1,023백만명(역사상 최고), (2010) 925백만명

- G20 서울 정상회의(10.11월)에서 식량안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함

- FAO, OECD 등 국제기구에게 “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에 대한 정책대안 발굴”을 요청

참고 2 G20 농업장관회의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

①농업생산과 생산성, ②시장정보와 투명성, ③국제정책 공조, ④가격변동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위험감소, ⑤금융규제 분야에 대해 행동계획 수립

1. 농업생산과 생산성

○ 농업연구 강화를 위한 연구 시스템의 강화

- 농업연구와 혁신을 강화하고 글로벌한 농업 협력의 중요성 강조
- 농업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몽펠리에 로드맵*을 환영하고 지지
 - ★ 2010. 3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농업연구에 관한 글로벌 포럼을 열고 농업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논의한 로드맵으로 '11.9월과 10월에 세미나 실시
- 국제밀연구이니셔티브* 발족
 - ★ 밀생산 및 관리 연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운영할 예정(출범: '11.9, 전략계획수립('12.1)
- 쌀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농업연구자문단(CGIAR), 아프리카 쌀개발연합(CARD), 국제쌀연구소(IRRI) 등 연구기관과 연계

○ 농업 투자 확대

- 서비스, 기반시설, 생산설비, 시장접근, 수확전후의 손실감소 등에 집중하고 농업과 관련 분야(항만, 도로 등)에도 투자 촉구
- 국제기구는 '12년에 물관련 이슈 보고서를 제출
- 국제기구에서 진행중인 “토지와 수산, 산림 소유권의 책임 거버넌스”와 “책임있는 농업투자원칙(PRAI)”을 지지

○ 기후변화

- 기후변화에 적응, 온실가스 감축, 식량안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투자의 증대 필요성을 강조
- UN기후변화협약(UNFCCC)을 지지하고, 농업온실가스연구연맹(GRA)의 역할을 인식

2. 시장정보와 투명성

○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(AMIS) 설립

- * 전세계 농산물의 생산, 소비, 교역, 재고 정보를 수집, 활용함으로써 실물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할 예정인 기관으로FAO에 위치하며 사무국 설치('11.6), 식량시장 정보그룹 운영('11.9)
- 민간 부문의 곡물 비축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권장
- *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는 보안 유지
- FAO에 본부를 두며 국제기구(WB, OECD, UNCTAD 등) 참여
-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과 자원을 활용
- 세계, 지역, 국가의 조기경보시스템과 AMIS를 연계하여 효율성 증진

○ 신뢰할 수 있는 통계 구축

- 농업통계에 관한 글로벌 전략(FAO) 환영하고 AMIS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 지식과 경험 활용
- * 품질, 정확성, 시의적절성, 정보공개 등을 통해 목표 달성

○ G20글로벌 농업 지리정보 모니터링 이니셔티브

- 작물 생산량 예측과 기상예보를 위해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기상 및 작황정보 수집

3. 국제정책 공조

○ 신속대응 포럼(RRF)

- * 식량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제기구, 관계국가 등이 참석하여 위기 타개를 위해 포럼 형식으로 운영 '11년 하반기에 운영하기 시작

○ 강력한 글로벌 거버넌스

- 강력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며, FA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FAO의 개혁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
-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UN 고위급 타스크포스(HLTF)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

○ 무역

- 개방된 시장은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, 예측 가능하고 왜곡이 없는 투명한 교역시스템이 필요
- DDA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내 러시아의 WTO 가입 노력을 환영

○ 비영리 목적의 식량수출규제 폐지

- 자국의 식량안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감안하되, 인도주의적 목적의 식량구매는 수출규제조치(수출금지, 수출 물량 제한, 과도한 수출세 부과)를 금지
- 연말까지 WTO 장관회의에서 특별 결의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

○ 바이오 에너지와 식량안보의 균형

- 바이오 연료가 세계식량안보,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 수요의 도전과 기회이므로 바이오 연료와 식량의 가용성, 농산물 가격의 상승과 변동성, 농업생산성의 지속성 관계를 분석
- 식량과 경쟁하지 않는 바이오 연료기술 개발의 중요성 인식

4. 가격변동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위험감소

○ 시장기반 위험관리수단 개발 및 보급

- 취약한 가구(생산자 포함), 지역사회, 정부의 효과적인 위험관리 노력 확대를 지지
-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양관점의 접근이 중요함을 인식
- 시장 기반의 농업 및 식량안보 위험관리 도구(Tool Box)*를 지지
 - * 개도국 및 취약국가의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WFT 등이 제안한 실물시장 및 금융시장 위기관리 도구로서 첫보고서 출간('11.11) 위험완화 메카니즘을 제공('11.9)할 예정

○ 취약국가의 능력개발

- 농가, 기업, 정부가 잘 규제된 시장기반에서 위험분산도구 활용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지원
- 세계은행 그룹과 국제금융공사(IFC)에서 추진중인 위험관리 툴(상품 헤징 포함)을 환영

○ 인도주의적 차원의 비상식량 비축제도

- WFP에서 제안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전략적, 소규모의 비상식량 지역단위 비축제도를 지지하며,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연구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
- 기존의 메카니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
- 국제기구는 비상식량 비축제도의 모범사례, 자발적 원칙 등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
 - * WFP는 타당성 조사, 시험운영 제안을 위한 실무그룹 조직('11.6)하고 워크숍('11.9) 및 재무장관 및 개발장관 합동회의에서 시험운영 제안('11.9)

5. 금융규제

○ 파생상품 시장의 중요성

- 잘 규제된 선물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은 잘 작동되는 실물시장 기능의 핵심요소라는 점에 동의
- 시장은 적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, 가격변동성 위험을 헤징할 수 있음

○ 공조 강화

-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은 중요하며,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당국, 규제자 및 관련 기관간 공조강화 필요

○ 금융장관 채널과 협조

- 시장남용, 시장간 조작 등을 시정하고 투명한 농산물 선물 및 파생상품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IOSCO*의 노력을 지지
 - *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(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)는 증권거래의 규제·감독에 관한 다국간 국제협력문제를 검토하는 국제기구
- G20재무장관들이 농산물 선물 및 파생상품 시장이 더 나은 규제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
- 파생상품의 투명성 제고, 규제 및 감독에 관한 IOSCO 권고안을 9월까지 마치기로 한 결정을 지지

참고3 GRA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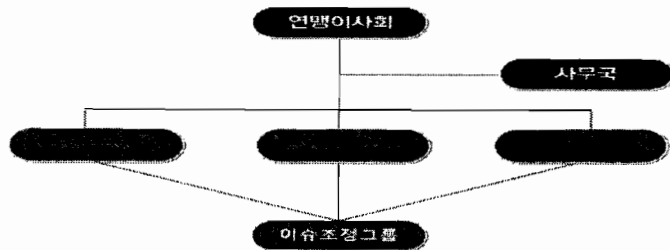
□ GRA는 지속적인 식량생산 추구·농업 온실가스 감축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협력과 투자 확대를 논의하는 국제 협력체

- 회원국의 자발적 공동노력에 기초한 상향식·개방형 R&D 네트워크

□ 회원국 : 34개국('11년 6월 현재)

- * 미국, 캐나다, 칠레, 콜롬비아, 페루, 우루과이, 멕시코, 아르헨티나, 뉴질랜드, 호주, 인도, 인도네시아, 일본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파키스탄, 필리핀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스페인, 네덜란드, 덴마크, 아일랜드, 스웨덴, 스위스, 가나, 노르웨이, 러시아, 핀란드, 태국, 남아공, 이탈리아, 중국

□ 거버넌스 : 연구그룹 중심으로 운영



- 이사회 : 연맹의 전체적 틀과 운영, 활동에 관한 사항을 결정·조정, 이사회 회의는 최소 1년에 1회 실시(주최국: 의장 차기 주최국: 부의장)
- 사무국 : 연맹이사회 회의를 조직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, 연구그룹과 이슈조정그룹의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
 - * 뉴질랜드 정부가 임시 사무국 역할 수행 중
- 연구그룹 : 경종, 논농업, 축산 등 3개 분야로 되어있으며,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연구 수행
 - * 경종 : 미국, 논농업 : 일본, 축산 : (반추)뉴질랜드, (비반추)네덜란드
- 이슈조정그룹 : 각 연구그룹에 모두 포함이 되는 포괄적 이슈에 관해 협력하고 연구 주도

참고4 GRA 현장 요약

□ (설립이념) 농업 온실가스배출 억제 노력의 지속가능성에 공헌하면서 식량안보목표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활동에 대한 자발적 투자와 협력 증진의 틀 마련(제1~7조)

- 헌장(연맹)은 자발적 계획으로 회원국이나 다른 국내, 국제 법 하에 있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나 의무가 없음

- 공공과 민간 연구 활동의 국제적 협력, 협동, 투자 증가, 연구성과의 공유 추구

□ (거버넌스) 연맹이사회, 연구단체, 이슈조정그룹으로 구성(제8~35조)

- 이사회 : 연맹의 전체적 틀과 운영, 활동에 관한 사항을 결정·조정, 이사회 회의는 최소 1년에 1회 실시
- 사무국 : 연맹이사회 회의 등 행정적 지원 제공, 연구그룹과 이슈조정그룹의 활동 지원 및 이사회 보고
- 연구그룹 :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연구 수행
- 이슈조정그룹 : 각 연구그룹에 모두 포함이 되는 포괄적 이슈에 관해 협력하고 연구 주도

□ (연맹 참여) 회원국은 모든 연맹 활동에 있어 참여의 정도와 성격을 개별적으로 결정(제36~38조)

□ (자원 기여)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자금이나 개인자원 기타자원을 기부 가능(제42조)

□ (지적재산권) 지적재산권과 처우에 관한 문제와 연맹의 협력활동에 관련한 문제는 연맹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시기에 특정 범위 안에서 한건씩 해결(제45조)

참고 5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수준농정형 '10 기준

□ 온실가스 감축 분야

연구지표	주요 비교 대상국			국내	단계			
	EU	미국	일본		초기	개발	응용	성숙
□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	78%	70%	75%	53%		○		
○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인벤토리 구축	70%	60%	80%	50%		○		
○ 농산물 탄소 LCI 구축	80%	70%	70%	40%	○			
○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	80%	80%	80%	60%		○		
○ 탄소저장 및 순환기술개발	80%	70%	70%	60%		○		

□ 기후변화 적응 분야

연구지표	주요 비교 대상국			국내	단계			
	미국	일본	중국		초기	개발	응용	성숙
□ 기후변화 적응 농업 기반 조성	100%	100%	70%	90%		○		
○ 식량작물 고품질 안전생산	100%	100%	80%	100%			○	
○ 식량작물 품종개발	100%	120%	90%	110%			○	
○ 안전 농축산물 생산	100%	90%	50%	70%		○		

참고 6 제37차 FAO총회 개요 (6.25~7.2 이탈리아 로마)

1. 회의개요

- FAO총회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FAO 최고의결기구로서, 191개 FAO회원국 농업각료가 참석하여 세계 식량농업상황 등 논의
 - 금년에는 사무총장 선출, 2012-13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·의결, 회원국 분담금 비율 확정, 이사국 선출 등 예정
- 참석대상 : FAO회원국(191개국), 국제기구, NGO
 - 우리나라는 회원국이면서 이사국 및 아·태지역 총회 의장국 지위
 - 지역총회 의장국 : 아·태지역(대한민국), 남미 및 카리브지역(파나마), 아프리카 지역(앙골라), 유럽지역(아르메니아), 근동지역(수단)
- 주요 일정
 - 6.25(토)~26(일) : 사무총장 후보자 연설 및 선거
 - 6.27(월)~30(목) : 3개 회의장에서 회의 진행
 - 본회의장 : 세계 식량농업상황 논의(기조연설 및 토의), 회계감사, 분담금 규모 등 논의
 - 제1분과위 : 각 지역총회 및 산하위원회 결과 보고 등
 - 우리나라는 제30차 아·태지역총회 결과 보고 예정(6.27일)
 - 제2분과위 : '12~'13 사업예산안, FAO개혁 추진 상황 등 논의
 - 7.1(금)~7.2(일) : 규정 개정 및 이사국 선출, 보고서 채택

2. 주요 논의내용

- FAO 차기 사무총장 선거
- 세계식량농업 상황 검토(회원국별 기조연설 및 토론)
- 2012~13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및 회원국 분담금 규모 결정
- 각 위원회 및 지역총회 활동사항, FAO개혁 추진상황 보고 및 검토
- 차기 이사국 선출